

인터뷰-제16대 총장 예비 후보자

“큰 변화 추구하는 요구에 부응해 개방 지향할 것”

김도연 예비 후보자

정리: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nu.ac.kr

Q1. 예비 후보자 등록 계기는.

지난달 경희대학교 총장후보자추천 위원회로부터 총장 선임 과정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대부분 대학은 학내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을 선임하기에 이러한 요청을 개인적으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수락을 주저했다. 하지만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되어 예비 후보자로의 등록을 결정했다. 개방적인 조직만이 발전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결과에 상관없이 경희대학교가 지향하는 ‘개방’을 성원한다.

Q2. 최우선 정책은.

아무래도 경희대학교가 처음인 만큼 현재 대학의 구체적 재정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인 재정, 교육, 연구, 행정, 자율성 문제는 큰 차이점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존경받는 경희대학교’다. 경희대학교는 우리 사회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학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우리나라의 고등 교육에서 플래그쉽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학이고 또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존경받는 경희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진력을 다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Q3. 재정 확충 방안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사립대학은 예외 없이 재정 위기에 봉착해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대학의 위기는 사실 다른 나라도 존재했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은 20여 년 전 재정 파산을 겪었다. 하지만 이를 대학 구성원 모두의 노력으로 10년에 걸쳐 극복한 후 ‘와세다 재생’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물론 재정 위기 해결의 최종 책임자는 총장이다. 대학 발전기금 확충은 총장이라면 누구나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대학 발전기금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를 위해 동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스스로 지식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도록 할 것이다. 연구로 창출한 지식을 이용한 창업으로 사회,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이를 다시 교육과 연구에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분야의

**학력**

서울대 공과대학 재료공학과 졸업(공학사), 프랑스 블레즈파스칼 대학 박사과정 졸업(공학박사)

주요경력

서울대 공과대학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울산대 총장, 포스텍 총장,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위원장

- 지식으로 창출한 가치를 교육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 수립
- 글로벌 경쟁력인 유학생, 대학 형편 파악 후 지원 방안 찾아야
- 의학, 한의학 분야 중점 육성 세밀히 검토할 것
- 개방적인 모습으로 소통을 위해 각별히 노력할 것

교수 개인의 연구 역량 강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믿는다.

Q9.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학두가 소통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개개인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기에 당연한 일이다.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소통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일에 ‘개방’을 지향한다. 그간 타 대학에서도 구성원과의 소통 문제는 없었다. 학생과 교직원, 동문과의 소통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

Q10. 권력형 인권침해 방지 정책은.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힘을 지닌 사람이 그려지 못한 사람을 괴롭히는 일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대학의 교수직은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지’가 요구되는 직책이다. 좋지 않은 일에는 관용이 없어야 한다. 경희대학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문화세계의 창조’ 또한 약자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 이뤄진다고 믿는다.

Q11. 거액의 지원금을 받고 시행 중인 사업(예 : LINC+ 사업,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방침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대형 연구과제 수탁은 대학을 활발하게 만드는 바람직한 일이다. 교수 개인이나 그룹이 이런 과제를 수탁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를 기획하는 일에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연구 과제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별도의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Q12. 타 후보와는 다르게 유일한 외부 인사로 추천되어 예비 후보자에 추천됐다. 학내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하는 구성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지 궁금하다.

외부에서 왔으나 경희대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대학이란 조직은 그 이상의 자유로움과 활기가 있는 곳이라 확신한다. 이전에 있었던 울산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일을 진행했으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든 일을 함께하면 된다. 가장 좋아하는 서양 속담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만일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라, 만일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를 인용하며 존경받는 경희대학교를 위해 모두를 아우르며 일하겠다.

“

구성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모두를 아우르며 일한다면 외부에서 왔다는 의견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존경받는 경희대를 위해 일하겠다.

”

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나 기업으로부터의 대형 연구과제 수탁에 총장으로서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 이에 더해 R&D를 넘어서는 기업과의 협력도 모색하겠다.

Q4.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방향과 원칙은.

정규직 전환 문제는 비단 경희대학 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본다면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일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규직 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다만 결점과 흡을 고치려다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

Q5. 교육 혁신의 핵심은 무엇인가.

대학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소명은 학생 모두에게 각자의 밝은 미래를 꽂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지금의 대학생이 살아갈 미래의 구체적 모습은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현재로서 뚜렷한 것은 인간 수명 120세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의 대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적어도 70년에 걸쳐 사회,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교육 여건 개선은 작은 문제일 수 있다. 작은 문제보다는 대학 교육에 혁명적 변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껴진다. 비록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대학 사회에서의 혁명은 불가능하겠지만 진실로 중요한 것은 교육이기에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혁신하는데 주력하겠다.

Q6.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은.

대학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기에 외국인 유학생은 소중한 존재이며 최대한 편안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대학의 여러 협력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지원 방안을 찾아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원론적인 답변으로 마무리한다. 우선 교수가 맡고 있는 강의에 외국인 유학생이 수강을 한 뒤 요청이 있을 경우 영어를 사용해 수업을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Q7. 연구 역량 강화 방안은.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연구는 교육과 더불어 대학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연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학은 빛나지 않는 보석이다. 그냥 평범한 돌멩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우선 몇몇 분야만이라도 연구력 강화에 치중해야 한다. 소위 말하는 ‘Focused Research University’다. 국내는 물론 세계가 인정하는 앞선 연구 분야가 필요하다. 몇 분야가 앞선다면 또 다른 분야의 견인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경희대학교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의학, 한의학 분야를 위시한 중점 육성 분야를 세밀하게 검토하겠다.

Q8. 학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방안은.

대학 자체의 연구경쟁력 강화로 풀 수 있는 문제다. 학사 졸업생은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대학원에 입학한다. 그러기에 대학원생이 좋은 연구 성과를 내는 연구실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학과